

부활절 여섯 번째 주일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6TH SUNDAY OF EASTER

주후 2020년 5월 17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197장 “이 세상 험하고” (새 263)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20번 시편(Palm) 91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권영수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Leading	히(Hebrews) 9:16-28	박문복 집사
설 교 Sermon	“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언약 (The Covenant Set by The Blood of Christ)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송: 윤홍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186장 “내 주의 보혈은” (새 254)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 무감각과 신앙의 익숙함과 진부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고, 염려와 걱정과 불신과 불안함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더 이상 회개 없는 용서와, 십자가 없는 부활과, 예수님 없는 왜곡된 복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게 하시며, 매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실한 성도의 삶의 살아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엡 4:30)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번째 나타나시리라.” (한글개역 **히9:27-28**)

“Just as man is destined to die once, and after that to face judgment, so Christ was sacrificed once to take away the sins of many people; and He will appear a second time, not to bear sin, but to bring salvation to those who are waiting for Him.” (NIV **Hebrews 9:27-28**)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5/17 (주일)	5/18 (월)	5/19 (화)	5/20 (수)	5/21 (목)	5/22 (금)	5/23 (토)
	민27	민28	민29	민30	민31	민32	민33
본문	시70,71	시72	시73	시74	시75,76	시77	시78:1-37
	사17,18	사19,20	사21	사22	사23	사24	사25
	벧전5	벧후1	벧후2	벧후3	요일1	요일2	요일3

수/요/ 성/경/공/부

수요 성경공부(5/20수 오후7:30) “어느 때까지 참으랴?” (민14:26-38)

지난 주일(5/10) 말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히 9:1-15)

성경에서 ‘기업’ 또는 ‘유업’ 등으로 번역된 단어들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대개) 눈에 보이는 ‘땅’이나 ‘소유’나 ‘유산’등을 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후대에 가서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 하나님의 백성,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의 기업이 된다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실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히9:15)고 말씀하면서,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는 공허한 말씀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며?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항상 경계해야 하겠습니까?

1)첫째, (우리는) ‘영적 무감각’을 경계해야 하며, 2)둘째, (우리는) ‘신앙의 익숙함’을 경계해야 하며, 3)셋째, (우리는) ‘신앙의 진부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영적 무감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 보다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성숙)하지 못하는 그 주된 원인은 (바로) 신앙의 익숙함에서 비롯되며, 특히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드러내려는 마음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신앙의 진부함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되어 주셨기에, 이제는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시는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